

[붙임1] 면접 심사용 암기 자료

아래 제시된 면접 이야기 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암기 후
면접시 구연합니다.

※ 제시된 이야기 외에 구연 불가 ※

면접 이야기 1. 세상을 탐구한 서경덕

면접 이야기 2. 이상의와 방울소리

면접 이야기 3. 신라를 사랑한 바다의 왕, 장보고

세상을 탐구한 서경덕

옛날 어느 마을에 경덕이란 아이가 살았어요.

경덕이는 가난했지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가난한 경덕이를 종종 놀렸어요.

“꿀떡 맛있겠지?”

어떤 친구는 배고픈 경덕이 앞에서 혼자만 꿀떡을 날름 먹었어요.

“이 옷 멋지지?”

새 옷을 입고 경덕이에게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덕이는 친구들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글공부를 하느라 관심이 없을 정도였어요.

경덕이는 공부를 하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스스로 답을 찾고는 했어요. 훈장님은 그런 경덕이를 보고 대견해 했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이해하다니. 넌 참 대단하구나. 경덕이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할 거야.”

호기심이 아주 많은 경덕이는 책을 보고 글공부만 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궁금한 것들은 계속 생각하며 자연과 물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공부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답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이상의와 방울 소리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의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항상 장난치고 말썽을 피웠지요. 마루를 닦고 있는 하인이 보이면 그 위에 폴짝 올라탔어요.

“이라! 이라! 말타기 놀이하자!”

상의는 하인들 등에 올라가 몸을 들썩이며 신나게 놀았어요.

“아이쿠! 허리야!”

하인들은 허리가 꺾여 아팠어요. 하지만 상의는 혼자 깔깔대며 장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의 장난이 심해질수록 부모님의 걱정은 날로 커졌어요.

“대체 왜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에혀, 글도 한 줄 제대로 못 읽으니 그것도 걱정이요.”

부모님은 서로 마주보며 한숨을 깊게 푸욱 쉬었어요.

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상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싫어요! 내 마음이에요!”

하며 점점 더 장난이 심해졌어요. 서당에 가서도 가만히 앉아 있질 않고 뛰어다녔어요. 서당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상의를 내쫓았어요.

무서운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 맡겨도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들 혀를 찹찹 차며 돌아가 버렸지요.

신라를 사랑한 바다의 왕, 장보고

옛날 어느 섬마을에 활을 잘 쏘는 소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으로 궁복이라고 불렀지요.

바다를 좋아한 궁복이는 어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에 자주 나가곤 했어요.

“아버지, 저는 커서 활 잘 쏘는 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나라를 오가며 장사도 해 보고 싶기도 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맘껏 돌아다니고도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궁복이의 눈빛은 햇빛을 받아 빛나는 파도처럼 반짝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부의 아들은 어부 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얘야, 이 나라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단다. 미안하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가요?”

“글쎄다. 다른 나라에는 다른 법이 있겠지. 자,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날이 저물어 가는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궁복이는 키가 훌쩍 커졌어요. 꿈도 더 커지고 단단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복이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당나라로 가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부모님은 걱정되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 허락해 주었어요.